

◇고려말 공민왕이 태고 보우스님을 국사로 추대하면서 교지를 내리는 의식을 재현한 태고 보우국사 국사 추대 재현식이 6일 사나사에서 열렸다.

"큰스님은 시대의 거울"

사나사 600년만에 재현한 태고스님 국사추대식

고려시대 나라의 정신적 스승인 국사(國師)를 맞이하는 국가적 의례였던 국사 추대식이 6일 경기도 양평 사나사(주지 화암)에서 600여 년만에 재현됐다. 고려말이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단순히 불교계의 큰스님이 아니라 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로 시대를 온몸으로 껴안았던 태고 보우(1301~1382) 스님의 삶이 6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곁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태고 보우 스님 탄신(음력 9월 21일) 700주년을 맞아 스님이 주석했던 사나사에서 '태고 보우 스님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화암 사나사 주지)' 주최로 열린 국사 추대 재현식은 고려시대 복식을 갖춘 어사 행렬이 만장과 오방육정기를 앞세우고 일주문 앞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물럿거라, 고려국 어사 행차이시다. 만백성은 예를 갖추시오"라는 전호위대장의 호령에 이어 전호위대와 익화현 현령, 어사, 금란가사와 불진 등 국사 추대 하례물품, 후호위대가 취타대를 선두로 들어서자 함석한 2000여 사부대중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태고 보우 스님을 고려국 국사로 추대한다는 교지인 비곡두서(飛鵠頭書), 왕의 친서를 전한다는 뜻을 지닌 어사가 보우 스님에게 아홉 번의 절을 올렸다. 교지를 보우 스님에게 전한 어사는 만수가사(萬數袈裟)와 불진, 수정 염주, 침향불자(沈香拂子) 등 왕이 보내준 예물을 올렸고, 익화현(지금의 양평군)을 양근군으로 승격한다는 교지 낭독이 이어졌다.

태고 보우 스님은 고려말 공민왕 때 왕사(1356년)와 국사(1371년)로 잇달아 추대됐고, 그 뒤를 이은 우왕 때도 두 번이나 국사로 책봉됐다(1374년과 1381년). 이날 추대식은 보우 스님이 신돈에 의해 속리산 법주사에 유폐(1368년)됐다가 신돈 처형 후 다시 사나사로 돌아온 후인 1371년(세수 71세), 공민왕이 스님에게 국사 추대 교지를 전한 서신지례(書神之禮)를 재현한 것이다. 〈고려사〉나 〈동국이상국집〉 등의 사료를 보면 왕은 국사로 모시고자 하는 간곡한 뜻(讚仰之情, 찬앙지정)을 담아 국사로 추대하려는 고승이 주석하는 절



'나라 어른' 모시기 장관
2000여 대중 감탄
물질만능 정신적 혼란기
난국타개 지도자 아쉬워

에 세 차례 조서를 보내는데, 고승이 세 차례 사양(三反之禮)한 후 마지막에도 사양표(辭讓表)를 올리지 않으면 왕은 예물을 보내 사례(謝禮)한다.

이날 국사 추대 재현식은 그러나 단순한 의식의 재현이 아니었다.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은 "왕사나 국사는 불교계의 큰스님이라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지혜와 덕을 겸비한, 한 나라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태고 보우 스님이 살았던 고려말이 정치적 혼란기였다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요즘은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채 무명 속에 살고 있는 정신적 혼란기"라며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를 타파할 정신적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태고 보우 스님을 기리는 마음도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사 추대 재현식에 앞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 주지 일면 스님, 양평 불교사암연합회장 준원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 최순식 경기도 부지사, 한나라당 손학규 국회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신 다례재가 열렸다.

한편 한국불교 태고종회(회장 무공)도 이날 보우 스님의 부도인 원증국사탑(보물 749호)이 있는 북한산 태고사에서 태고 보우 스님 탄신 700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권형진 기자

국사제도 국사 제도는 신라시대에 이미 있었다. 효소왕대의 혜통 국사 등 신라 중·하대에 10여 명이 국사로 추대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국사 제도 이전에는 국통(國統)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승단을 통괄하는 최고위직 성격이 강하다. 신라에 귀화한 고구려 스님 혜량이나 자장율사가 대표적이다.

왕사·국사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고려 개국 후 태조 왕건이 국사와 함께 왕사를 두면서부터다. 왕사는 임종의 '왕의 가정교사' 성격이 짙었다. 고려시대에는 거의 모든 시기에 왕사나 국사가 각각 1명씩 책봉된 것으로 보이나 모두 몇 명이 책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려사〉에 책봉 사실이 법명과 함께 간단히 실려 있고, 현존하는 문집이나 비문을 통해서야 단편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후에 추봉된 13명을 포함해 60명 정도의 이름이 전해져 온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계 지켜야 道 이룬다

한글대장경의 세계

비나야

비나야(毘奈耶)는 율장 가운데 공율에 속하는 경전이다. 공율은 출가자인 비구와 비구니의 생활 규범인 계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공율 가운데서 계율의 조문만을 추출한 것을 계본이라하고 승단회 혹은 의식의 진행방법이나 의식에 있어서 일정한 창언을 편집한 것을 갈마법이라고 한다.

비나야는 '계인연경비나야'라고도 불려졌는데 비나야란 말은 Vinaya의 음사로써 경분별(經 分別)이라는 의미다. 비구계 각 조문의 계율이 제정되게 된 인연을 밝혀 놓은 것이다. 그래서 '계인연경'이라는 명칭이 유래 된 것.

광율은 일반적으로 비구계 및 비구니계의 분별과 건도부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광율 역시 비구 비구니계의 제계인연(制戒因緣)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계인연경'과 다를 바 없으나 비나야는 비구니계분별 및 건도부 등을 빠뜨리고 있어 불완전한 광율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비나야란 말의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경의 제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인연경'을 경의 제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안(道安)의 서문에 따르면 비나야가 한역되어진 것은 부진(苻秦) 건원(建元) 18년(382)이며 중국



에서는 처음으로 한역된 광율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안에 와서 역경을 하고 있던 서장의 사문 구마라불제와 함께 왔던 야사(耶舍)가 이 계율을 암송하므로 축불념(竺佛念)이 구송 내용을 불제와 함께 역출하였다는 것이 비나야의 한역 경위다. 도안은 이 번역이 나온 것을 대단히 기뻐하며 "2년 사이에 이 중국땅에서 삼장이 갖추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율 제정 인연 등 밝혀
382년 中서 최초 한역

비나야의 역출에 의해서 중국에는 경 율 론 3장이 갖추어 졌음을 기뻐하며 서문을 지었다는 것이다.

도안은 경전의 주석이나 목록의 편찬 등 학문연구에 힘썼을 뿐 아니라 계율 방면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인물이다. 도안은 도를 얻는 기초는 바로 계율이라고 생각하여 계율을 삼장 가운데 제일 처음에 두었다.

율장의 번역은 십송율(十誦律)의 역출(404년부터 시작됨)에 기초하여 이로부터 한역 율장의 용어가 확립되었다. 비나야는 계조(戒條)의 배율 순위 특종의 인연담 배치 방법 등을 통하여 십송율과 계통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십송율 계통의 고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에 있어서는 십송율 이전의 번역이란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한글대장경 모시는 사찰·가정 늘고 있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이룩한 대작불사 한글대장경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법보 한글대장경을 봉안 하는 사찰도 늘고 있으며 가정에 한글대장경을 모시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사찰이 '1불자 1권 봉안불사'를 추진해 한글대장경을 모셨

"전화 한통화면 봉안불사 O·K"

으며 현재도 이 불사는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1불자 1권 봉안불사
◆대장경 법보시안내
◆화주 권선 안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 가입으로 한글대



장경 봉안(신도님들이 부다피아 하나비자카드에 가입하시면 한글대장경은 물론 장경각까지 돈 안들이고 봉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장경각 보급 불사안내 문의
전화 737-8881, 722-4162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피아 하나카드 발급개시

【 누구에게나 발행되는 상업적 목적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직 불자님들께만 발행되는 불교복지 카드입니다.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보시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법홍포의 방편으로 전달 됩니다.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pia.com

하나은행비자카드 특전+재물보시!

부다피아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 된 카드발급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 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피아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책새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보시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부다피아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황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주유할인 서비스(S-OIL)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 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항공상해보험, 뺑소니안심보험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스피드카드론



초년도 연회비 면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